

제432주년 충장공 권율 도원수 이치대첩 기념제 봉행

국가예산 지원 받은 최초 행사,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도록 노력



안동권씨 족친들은 박법민 금산군수(앞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장호 금산문화원장(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제432주년 충장공 권율 도원수 이치대첩 기념제가 8월 26일 10시 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에 위치한 충장사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성하 아나운서의 사회와 32사단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성황리에 봉행되었다.

주요 인사로는 박법민 금산군수를 비롯하여 김기운 금산군의회의장, 박선미 금산경찰서장, 이범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970년대 박재수 중령, 김종욱 금산소방서장, 장호 금산문화원장, 박철우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장, 김성일 진산신협이사장, 김석곤 충청남도의회 의원, 정옥은 금산군의회의원, 금산군 보훈단체연합회, 안성근 안주문화원장, 장항규 안주독립기념관장, 김인철 웅치대첩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손중하 금산역사문화연구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안동권씨 대중회에서는 권오돈 추밀공파총회 회장, 권중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권세환 상주교육지원청 전 교육장, 권오형 충주중친회장, 권정택 정현공 종중 회장, 권영복 서울지역중친회장, 권오상 사무총장, 권기보 총무국장, 권기준 문경공 종손, 권선출 성균관 감사, 권태윤 부회장, 권중숙 작가, 권병선 전 서강대 교수, 권용주 매한공 종중 고문, 권병돈, 권수웅 상임위원, 권병돈 정간공 종중 회장, 권경일 석주공 종중 회장, 권이수 전주완주중친회 회장, 권성기 금산중친회 전 회

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서울에서는 대형버스 1대를 임차하여 27명이 참석하였고, 충주중친회 10명, 상주중친회 3명, 음성중친회 6명, 대전중친회 7명, 금산중친회 5명, 전주완주중친회 15명, 기타 개별 3명 등 총 76명이 참석하였다.

박법민 금산군수는 인사말에서 “이치대첩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김기운 금산



32사단 군악대

군의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의회 김복만 의장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율장군 후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432년 전 바로 이곳에서 호남 곡창지대를 차지하기 위해 15,000명의 왜군이 진격해 왔다.

권율장군과 황진장군은 1500명의 의병으로 왜군을 격퇴시켰다. 그 뜻깊은 현장에서 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신을 길이길이 기리기 위해 금산군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면서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국가유산 호국선열 추모 행사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최초의 행사가 되었고 체험행사와 추모음악회 등 행사의 격이 올라갔다. 15,000명의 왜군은 이치대첩에서 패배하고 금산성으로 패퇴하였다. 그러나 조현이 지휘하는 의병과 영구 대사가 이끄는 승병이 왜군을 가만두지 않고 괴롭혔다. 이때 의병 700명과 승병 800명이 모두 전사했다. 왜군은 전의를 상실하여 호남 진격을 포기하고 후퇴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임진왜란의 전세는 반전되기 시작했다. 그 일이 금산에서 벌어졌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웅치대첩지는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었으나 이치대첩지는 아직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과 전라북도 양 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서로 협력하여 하루속히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최악의 수해를 입을 때 충장사도 수해 속에서 응급복구하여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깨끗한 충장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라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기운 의장이 선조의 뜻을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축사를 했고, 장호 금산문화원장이 이치대첩 승전기록을 낭독했다. 다음은 참석자 전원이 헌화 분향했다.

이번 이치대첩제에는 추밀공파 정현공계 참의공 종중(이사장 권동원)과 오헌공 종중(회장 권용학)에서 대형버스 1대를 임차하고 아침 식사로 김밥과 물, 점심으로 능이오리(닭)백숙과 버섯전골 등을 먹을 수 있도록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을 지원하여 주었다. 현장에서는 전주완주중친회(회장 권이수)에서 10만원을, 금산중친회에서는 박카스 3박스를 전조하였다.

안동권씨 대중회(회장 권영창)를 비롯해 추밀공파총회(회장 권오돈), 안동권씨 석주공 종회(회장 권경일), 완주군문화원장(원장 안성근), 시온농약사(대표 권오영), 안동권씨 참의공 종중(이사장 권동원), 안동권씨 대전중친회(회장 권용기), 권율도원수 종회(회장 권영범), 안동권씨 금산군 중친회(회장 권경관), 금산군 중도리 권중길, 진잠향교 전교 권송웅, 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회장 김성일) 등에서 화환을 보내 이치대첩 승전 432주년을 기렸다.

주최측은 2부 행사로 오후 6시 진산면 체육센터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전축하음악회를 개최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영창 회장, 김형동 국회의원 방문

국가문화유산 성지 조성 추진 논의



권행완 편집국장, 권오상 사무총장, 권영창 회장, 김형동 국회의원, 권태윤 부회장, 권중숙 작가(왼쪽부터)

권영창 회장은 8월 13일 14시 30분 권태윤 부회장과 권오상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 권중숙 작가와 함께 김형동 국회의원(지역구 경북 안동시에천군)을 방문하여 안동시 서후면 일대 국가유산 성지 조성 추진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며 성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중론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권영창 회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봉정사와 국보 제15호 봉정사 극락전 등

국보급 국가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안동시 서후면 일대를 국가유산 성지로 조성할 필요성과 성지 조성 사업 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며 우선적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동 국회의원은 좀 더 조사하여 성지 조성 대상을 확대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절차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2024년 9월 임원 회비 납부 내역

<찬조금>

[이치대첩제 관련]

<추밀공파 접수분>

대전 참의공종중(이사장 권동원) 1,500,000

<대중회 접수분>

경기시흥 오헌공종중(회장 권용학) 1,000,000

전주완주중친회(회장 권이수) 100,000

<임원회비>

이사

권순길(서울송파) 300,000

권병후(경기수원) 300,000

중무위원

권오춘(안동) 200,000

합계 : 3,4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 권씨대중회

www.adkimchi.com

전/화/주/문 가능
09:00 ~ 17:00 까지

010.4111.5501
054.842.5500 / 5501
080.057.5500

구매처 바로가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식물안전관리인증
HACCP

안동명가 김치

영농조합법인

안동명가 명품 김치

10kg 91,000 58,000 5kg 32,000 3kg 22,000

안동명가 명품 맛 김치

10kg 61,000 38,000 5kg 22,000

안동명가 깍두기

10kg 56,000 35,000 5kg 31,000 21,000

안동명가 총각김치

5kg 61,000 35,000 3kg 23,000

안동명가 백김치

10kg 68,000 41,000 5kg 23,000

안동명가 김치(안동명가 영농조합법인)

054.842.5500~1 / 080.057.5500 / Fax 054-842-5700

찾아오시는 길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장사리길 54-9

계좌번호 - 농협 351-1331-9550-63(안동명가 영농조합법인)

안동명가 김치

명절 선물세트

포기김치3Kg+총각김치3Kg+백김치5Kg

금액 : 53,000원(택배비별도)

전국대리점 모집

최고의 맛 안동명가!

안동명가에서 맛 본 고객들의 반복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안동명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 안동중친회장 권철환